

### 열한번째 이야기

## 고맙고도 고마운 선교사님, 응원합니다!

[꽃대를 향하여③ 동아프리카2]

이은혜 선교사님께



2021년 봄 꽃망울이 맺혀갈 무렵, 줌(온라인)을 통해 선교사님을 처음 뵈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여러 선교사님과 기도 테이블 식구들이 한 주간 있었던 일상에 대해 조금은 수다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재미있으셨는지 간혹 웃으시면서 따뜻한 미소로 함께 하셨지요. 그러다 몇 주 뒤 같은 시간 에티오피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감격해하는 청년과 같은 모습을,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터 맨 선봉에서 믿음의 검을 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여장군과 같은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회 중 설교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에티오피아 성도들, 길에서 만난 아이들을 모아 주님을 전하시던 이야기, 하임즈에서 훈련하는 형제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야기 하며 감격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렇게 하임즈에서 훈련된 청년들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지부디, 소말리랜드,

소말리아 등을 섬길 일꾼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며 선박 피랍 등으로 저희에게는 멀고 무섭게 느껴지던 무슬림 땅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기대에 찬 모습을 보여주셨던 선교사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설레던 청년 시절의 열정이 가슴 깊숙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교단 선교사 허입을 위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 한국에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고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셔서 동북부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계실 선교사님의 모습을 그리고 응원하며 기도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일 집사 드림 

김유신, 이경아 선교사님께



“김유신 선교사님”이라고 워드로 치는 순간 왠지 워드의 자동고침 기능이 “김유신 장군님”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름이 특이하여

오래전 이상덕 선교사님한테 김유신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는 이름이 항상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있는데 곧 대면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인지 김유신 선교사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간다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데, 마치 장군이 한 나라를 영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소리치는 외침과 같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대하는 김유신 선교사님은 정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BEE의 여러 선교사님이 그러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때에 따라 유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성결교단에서도 BEE를 전파하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하고 기도했었는데 김유신 선교사님은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요 또 한국에 계시는 동안 교단에서 여러 강의와 선교 보고를 하시고 해서 성결교단에 BEE가 연결되는 기회가 곧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선교단체를 통하여 알게 되는 성결교단 목사님들에게 자연스럽게 BEE를 소개하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이경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충분한 심을 누리시고 다시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결이가 아프리카로 떠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성훈이가 미국에서 인턴을 하기 위하여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닮아 듬직하여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군사로 삶을 사시는 김유신 장군님, 아무쪼록 지금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간다와 또 한국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강의와 선교 보고에서 많은 사역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문중 장로 드림 



**김용달, 강혜경** 선교사님께



두 분의 선교사님과 만남을 가진 지도 어언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한참이 되었군요. 말씀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최고의 학문을 마치고도

또다시 신학을 하며 선교를 준비하던 때를 기억해봅니다. 당시 그 누구도 원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서아프리카 가나를 향해 ‘순종’이라는 작은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던 것이 이제는 어엿한 아프리카 모슬렘의 강력한 남하를 막아 불어온 아프리카의 최전선 교두보로 자리매김의 역량을 펼쳐 나아가시는 모습을 선교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본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주님께 감사한지 말로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듦과 아픔, 시련이 있었는지 어찌 다 말하리오마는, 특히 막내아들 예성이의 말라리아로 인한 고열로 긴 밤을 마음졸이며 연례 행사처럼 한 해에도 여러 차례 테이블 기도방에 긴급 기도요청을 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강 선교사님의 심정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가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이때가 무릎 선교사로서 가장 마음 짠하게 느껴졌던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던 꼬맹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MK로 당당하게 자라나서 해당 선교지역은 물론 그 땅을 세계에 알리기 까지 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자녀들이 되고, 선교사님의 가정에 또 하나의 복음의 열매를 자녀들을 통해 보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우지요!

어쩌면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방 땅에서, 다른 종교와 타민족과의 갈등 관계,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회의, 자녀들의 정체성의 혼란 등등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교사의 삶일지라도 김용달, 강혜경 선교사님 두 분은 직접 만남에서나 영상에서의 나눔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행복한 선교사임을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그 삶이, 이 시대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참 동역자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의 참 모델, 바로 당신, 김용달, 강혜경(예지, 예성) 선교사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함에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무릎 선교사 정동기 드림 

이상덕 선교사님!



한국의 화사한 봄과 함께 오셨다가 아카시아꽃 사진을 남겨주시고 가신 선교사님~ ㅎㅎ

목적지는 잘 도착하셨나요? 선교사님과 문자 나눔을 하며 참 궁금했었는데 깜짝 방문으로 더욱더 반가웠어요. 아직 뵈지도 못하고 문자로 인사를 나누고 선교사님에 대해 존경함으로 살짝 어려웠는데 인형 같은 손녀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어색함과 어려움은 다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마도 선교사님의 위트가 더 커겠지만요. ㅎㅎ

선교사님께 편지를 쓰려고 언제부터 BEE와 협력하셨는지 찾아보니 2008년 8월의 시작이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만나러 온누리교회 왔을 때가 딱 그때였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제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2008년,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씨앗이 되던 2008년은 선교사님께 어떤 해였을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지다가 기적처럼 비가 그치고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공급이 되어 집회가 이어지고 교제 가운데 코로나19 소식도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권민주 사모님은 예정 대로 산후조리를 위하여 출국하시고,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였던 이야기들, 또 남아공에 대한 비전들을 꿈꾸시며 도전하시는 열정들 그런 열정들, 위트가 넘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전진하시는 이상덕 선교사님!! 늘 주님의 충만한 기쁨과 임재하심이 선교사님과 함께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남아공을 향한 비전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늘 응원 잊지 않고! 우간다에서도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유재화 드림 

윤경환 선교사님께



몇 해 전 동아프리카 테이블에서 되었던 선교사님을 올해 초 아프리카2 테이블에 와서 또다시 뵈게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선교사님은 2014년 9월부터 여러 해 동안 케냐 선교사로 섬기시며 저희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셨어요. 2018년부터는 케냐에 계시면서 우간다 사역을 총괄해 섬기시네요. 올해는 7월까지 안식월로 한국에 머물고 계시면서도 그곳 우간다에서 세미나가 재개됨을 감사하며, 조속한 우간다 학습서 출판을 힘써 챙기시며 이상덕, 김유신 선교사님과 여러 현지 선교사님들, 인도자님들과 연합해 2025년을 목표로 우간다 현지화에 힘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4년 전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편한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전심으로 섬기며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토요일 아침 Zoom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간증을 보고 듣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금 안식월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머니는 어떠하신가요? 미국에 있는 아드님은 잘 있지요? 동생분들도 누님을 보면서 주님의 길로 돌아서고 회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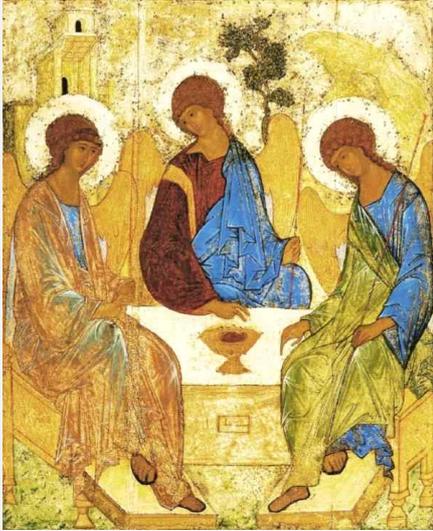
얼마 남지 않은 안식월 잘 쉬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더 보람 있는 날들이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김관수 집사 드림 



[정리: 김종영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삼위일체

(안드레이 루블료프, 1410년경, 러시아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

러시아의 수도사이자 성상 화가 안드레이 루블료프 (Andrey Rublyov, 1360-1430)의 '삼위일체'는 창세기 18장에 나온 세 명의 손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품 속 인물들의 얼굴이 매우 닮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본체로서는 한 분'이시나, '위격으로는 세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교의를 표현하기 위해 화가가 의도한 것이라 한다. 루블료프의 성화들은 유난히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유명하다. 그림 속 서로를 향한 시선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더없이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는 그 온화한 사랑의 신비는 그림을 부드럽게 채우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의 영혼까지 어루만져 준다.

“우리도 세 거룩한 천사가 나누고 있는 친밀한 대화에 동참하라고, 그리고 식탁에 더불어 앉으라고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성자에게 몸을 기울이신 성부의 움직임과 성부께로 몸을 기울이신 성자와 성령 두 분의 움직임은 하나의 움직임을 이루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마음이 드높여지고 든든해진다.”(헨리 나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러러』 분도출판사)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퓌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퓌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갈3:14).”
2. 5월 7일(토) 6:30, 서빙고 한동홀! 드디어 대면으로 BEE 토요일도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 송출)



3. 브라질 목회자들을 모시고 방문하신 박지웅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브라질에 BEE 사역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